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교류특별전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가 5월 28일 개막. 오는 8월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6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제7회 자밀 프라이즈 수상자인 칸다카르 오히다의 '당신의 박물관을 꿈꾸다'와 채문정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설명하는 모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교류특별전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가 5월 28일 개막. 오는 8월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6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제7회 자밀 프라이즈 수상자인 칸다카르 오히다의 '당신의 박물관을 꿈꾸다'와 채문정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설명하는 모습.

전쟁 뚫고 온 이슬람 유산 '인류 보편 서사'로 확장

손때 묻은 전화기와 카메라, 낡은 축음기, 빛바랜 우표들이 한 공간에 놓였다. 누군가 오랜 시간 애정을 갖고 하나하나 모아온 물건들일 터다 사소해보이는 이 물건들은 저마다의 시간을 품고 있으리라. 개인의 취향이 담겼음은 물론이고, 가족의 기억, 나아가 한 사회가 지나온 시대의 흔적을 말이다.

이들 사이, 서빙골의 전통 진흙집에 전시돼 있던 물건들을 기록한 영상이 흘러나온다. 영상과 사물들의 집합은 무엇이 박물관의 소장품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역사를 기록하고, 어떤 것을 남길 것인지 묻는다.

5월 28일 개막. 오는 8월 23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전시6관에서 열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교류특별전 '자밀 프라이즈: 무빙 이미지'에 출품된 칸다카르 오히다의 '당신의 박물관을 꿈꾸다'(Dream Your Museum)다. 제7회 자밀 프라이즈 최종 수상자인 이 작품은 작가의 삼촌 셸립이 50년에 걸쳐 모은 수집품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거창한 유물이나 제도권 박물관의 공식 소장품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서 오래 보존돼 온 사물

ACC '자밀 프라이즈: 무빙이미지' 8월 23일까지 복합전시6관
영국·사우디아라비아 이어 7팀의 작가 영상·사진·VR·등 선보

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적인 박물관을 이룬다. 작가는 이를 통해 식민주의 이후 형성된 박물관 제도와 문화 권력에 질문을 던진다. 인도 무슬림 공동체를 원형으로 삼아 역사와 기억이 누구에 의해 기록되고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배타성의 경계에 대해 함께 들여다본다.

이번 전시는 영국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V&A), 아랍에미리트 아트 자밀(Art Jameel)과 함께 마련한 이번 전시는 국제협력 순회전으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열린다.

'자밀 프라이즈'는 2009년부터 3년마다 열리는 국제 공모전이다. V&A가 2006년 자밀 이슬람 미술관을 재건축한 뒤, 이슬람 미술·문화·역사·사회·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동시대 미술과 디자인을 소개하기 위해 이어온 국제예술상이다. '자밀'은 아랍 자밀의 설립 배경인 자밀 가문을 의미하며, 아랍어

로는 '아름다운', '훌륭한'을 뜻한다.

ACC에서 자밀 프라이즈 전시가 열리는 것은 2017년 제4회 전시에서 이어 두 번째다. 9년 만에 다시 광주를 찾은 이번 전시는 국제 문화예술 교류가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300여 건의 출품작 가운데 최종 선정된 7팀의 작품이 소개된다. 영상과 설치, 사운드,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업들이다. 전시 주제인 '무빙 이미지'는 영화와 비디오, 디지털 영상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임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관람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갖는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업은 이슬람 문화유산을 고정된 전통으로만 바라보지 않는다. 오늘의 삶 속에서 다시 읽고, 미래를 향한 질문으로 확장한

다. 물과 생태, 가족의 기억, 사라진 장소의 복원, 박물관의 권위, 공동체의 신앙과 삶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한다. 그 바탕에는 누가 기억되고, 무엇이 사라지며, 예술은 어떻게 잊힌 목소리를 불러낼 수 있는가라는 공통의 질문이 놓여 있다.

전시를 위해 ACC를 방문한 마림 아카시 사니 작가는 미국에 이주한 무슬림 시아파의 기념일 문화 무하람에서 영감을 받은 '무하람' 연작을 통해 이라크계 이란인으로서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거주하며 겪는 무슬림 공동체의 삶을 담은 사진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알리아 파르디의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펼쳐진 습지를 기록한 영상 '지바이시', 사디 파이스 알프라이지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어머니의 손가락과 천국 사이를 잇는 빛의 실' 및 '희망의 눈으로 본 짧은 이야기', 자와 엘 카쉬가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성장한 경험과 고대 도시 팔미라의 유적을 방문한 기억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가상현실을 구현한 '하늘의 위쪽' 등을 만날 수 있다.

레이철 테드먼 V&A 큐레이터는 "무빙 이미지와 디지털 매체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주류 미디어에서

쉽게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담아내 역사와 장소를 더 친밀하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식이기에 이번 전시 주제로 선정됐다"며 "자밀 프라이즈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전시가 내포한 보편성이 전시구적 관점에서 관람객들의 서사와 이어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전시를 진행한 채문정 학예연구사는 "전쟁 상황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공방이 폐쇄돼 작품 운송이 어려웠는데 휴전된 뒤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며 두바이를 거쳐 무사히 전시를 열 수 있게 됐다"면서 "전시를 통해 이슬람 문화유산을 통해 특정 종교나 지역의 틀에 갇히지 않고, 동시대 서남아시아의 역사문화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고 확장해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국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슬람 문화권에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예술과 역사, 삶의 방식을 담은 이번 전시로 이슬람 문화예술의 가치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정체명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소박한 사물과 시간을 속삭이는 '집' 탐구

"집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물리적인 집은 인간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구축된 구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관념적인 집은 그보다 훨씬 풍부한 의미와 사건을 품고 있다. 소설과 시에서 집은 때때로 내가 읽고 있는 옷이 되거나, 그리운 어머니의 상처림이 되기도 하며, 이제는 만나기 힘든 옛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은유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집은 기쁨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온전히 실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을 함의하고 있다. 타인과 외부로부터 분리된 안식을 취하는 곳. 작가 정혜성의 집은 곁에 있는 소박한 사물과 시간에 대해 속삭인다."

위 글은 정혜성 작가를 위한 글로 박소호 비평가가 '커튼을 통과하는 빛'이라는 주제로 한 비평문에서 언급된 대목이다. 박 비평가에 따르면 작가는 집에 놓인 것들을 만지고 접촉하는 가운데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동작이 아니라 그가 집에 머무는 순간부터 공간과 사물이 그의 일부로 작동한다는 시각이다.

비평글을 보면 정혜성 작가의 작품들이 지향하는 지점을 눈치챌 수 있다. 전시는 지난 5월 28일 개막. 오는 7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사이의 집'(La maison de l'interstic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전시 제목인 '사이의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각과 존재가 교차하는 중간지대를 의미한다.

작가는 집이라는 공간 속에서 피부와 맞닿는 사물, 빛, 그림자, 흔적 등을 천천히 관찰하며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를 사유한다. 정 작가는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을 매개로 관계와 경계,

정혜성 프랑스 유학 후 광주서 첫 개인전
7일까지 예술공간 집... '사이의 집' 주제



전시 전경

감각의 층위를 탐구해가는 한편, 흰색의 실, 빛, 천, 사물 등을 활용해 신체와 공간의 연결 감각을 시각화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조선대 졸업 이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국립고등예술학교 HEAR(Haute école des arts du Rhin) 졸업(석사) 이후 광주에서 갖는 첫 개인전이다. 광주문화재단

2026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작가는 오랫동안 탐구해온 경계와 관계의 감각을 '집'이라는 가장 사적이고 친밀한 공간을 통해 풀어낸다. 실과 천, 빛, 종이, 사물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흐름과 존재 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흰색의 다양한 매체들을 서로 연결해가는 유기적인 설치 구조를 통해 안과 밖, 내부와 외부,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들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또 커튼을 통과하는 빛, 오래 머문 의자와 침대, 반복적으로 손이 닿는 사물들은 단순한 오브제 아닌 '연장된 신체'로 작동하며 공간 안에서 새로운 감각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전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흰색의 재료는 정혜성 작가 작업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작가는 차갑고 단단한 구조물 위에 흰 실과 천, 불투명한 막 등을 덧입혀 서로 다른 감각들을 부드럽게 연결한다.

이런 작업은 프랑스 유학 시기부터 이어져 온 '리미널'(Liminal)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리미널은 경계이면서 동시에 두 세계가 겹쳐지는 중간 영역을 의미하며, 작가는 이를 통해 고정된 구분을 넘어서는 감각의 상태를 탐구한다.

정 작가는 "집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몸의 연장처럼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전시가 사물과 공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다시 감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앵글에 담긴 세상 비추는 '지혜의 빛'

불교사진협회, 7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부처님오신날(5.24)을 기념해 불교의 지혜와 자비를 사진예술로 담아낸 전시가 광주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사진협회 광주지회(최현동)는 5월 31일 개막. 오는 7일까지 광주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정기회원전 '빛으로 오신 날: 마음으로 담은 우리의 사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순회전의 하나다. 앞서 서울 본전을 마친 뒤 광주 시민과 사부대중을 만나는 자리로, 전시 이후에는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진다.

올해 전시 대주제는 '빛으로 오신 날'이다. 광주지회 회원들은 세상의 아픔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풀어냈다.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진 작품들이 전시장을 채울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한국불교사진협회가 주관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문화체육관광부, 봉축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BBS불교방송,



김성규 작 '보현암의 등불'

BTN불교TV, 불교신문 등이 후원한다.

광주 전시에서 이어 대구 전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최현동 광주지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작품을 광주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렌즈에 담긴 찰나의 기록들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전되고, 세상을 비추는 지혜와 자비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체명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종교계도 스타벅스 5·18민중항쟁 펴헤 규탄 동참

"5·18 영령이 잠들어 있는 망월동으로 가 회개하라."

스타벅스의 5·18 펴헤 사태로 인한 분노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일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도 이에 동참했다.

31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조정훈 신부)에 따르면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의 일명 '책상에 탁, 탱크데이' 홍보와 함께 26일 정몽진 신세계 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신세계 내부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1980년 5월 광주 시민의 역사에 함께하며 겪었던 그날의 분노를 잊을 수 없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정몽진 회장의 몰역사인식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시각으로, 동시에 정몽진 회장과 그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몽진 회장과 같은 극우분자들의 몰역사성으로 인해 광주의 오월은 애도 됐지만 모욕당했고, 기억됐지만 왜곡됐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지로서 광주는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더불어 정몽진 회장과 임직원은 '머뭇거리지 말고, 광주 시민에게 응서를 구하고, 5·18 영령이 잠들어 계신 망월동을 참배해 회개하며, 오월 항쟁지를 방문하고 역사를 배울 것'을 요구했다. 고선주 기자